



볼펜의 수검 박준표

NC전 4.2이닝 등
최근 3경기 6.1이닝 소화
“긴 이닝 던지며 많은 공부
NC랑 다시 붙고 싶다”

4.2이닝 5실점의 성적으로 칭찬을 받은 투수가 있다. KIA 타이거즈의 사이드업 박준표의 이야기다.

박준표는 지난 28일 NC와의 경기에서 선발 같은 볼펜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선발로 나선 지크가 유격수 강한울의 실수 연발에 흔들리면서 4회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두 번째 투수는 좌완 유창식이었다. ‘임시 선발’체제에서 긴 이닝을 소화해줄 자원으로 호출을 했던 유창식은 그러나 기대와 다른 피칭을 하며 1.1이닝 2피안타(1피홈런) 3실점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볼넷 6개를 남발하면서 결국 일찍 세 번째 투수를 호출할 수밖에 없었다.

마운드를 넘겨받은 이는 박준표였다. 1-8로 뒤진 5회 1사 1-2루에서 출격할 박준표는 지식훈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그리고 박준표의 긴 하루가 시작됐다. 초반부터 기울어진 흐름, 임시선발 정용운이 출격하는 29일 경기에 대비해 볼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박준표의 임무였다.

박준표는 묵묵히 공을 던졌다. 손시헌에게 한방을 얻어맞았고 테임즈에게도 홈런을 내주기도 했지만 마지막 27번째 아웃카운트를 채우고 조용히 마운드를 내려왔다. 경기 결과는 5-13 대패. 박수도 완투도 없었다. 일방적인 흐름에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관중도 이미 썰물 빠지듯 빠져나갔다.

하지만 박준표는 다음 날 다투어에서 관계자들에게 “큰 일을 했다”며 칭찬을 받았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동료와 팀을 위해 희생한 귀한 4.2이닝이었다. 25-26일 삼성전에서 1.2이닝을 소화했던 박준표는 27일에도 선발 한기주가 일찍 무너지면서 볼펜에서 몸을 풀며 대기를 했다. 그리고 28일에는 4.2이닝을 소화했다. ‘임시선발’로 세 경기를 소화해야 했던 지난 한 주 박준표는 주목받지 못한 볼펜의 소금이었다.

“창식이까 미안하다고 하더라”며 웃던 박준표는 “좋은 경험이 됐다. 지난 생일 이후 가장 많은 이닝을 던져봤다”고 말했다.

박준표는 지난해 자신의 생일이었던 6월26일 두산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날 박준표는 5.2이닝 1실점의 호투를 했지만 역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다. 선발로 나선 험버가 1회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3회 0-9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박준표는 3회 2사에서 투입돼 8회까지 소화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초반에 결정된 승부에 주목받지 못한 호투였다. 하지만 박준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닝들이다. 박준표는 볼펜 투수다. 거의 매일 볼펜에서 몸을 풀고 대기를 하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이닝은 많지 않다. 긴 이닝을 던지면서 야구를 더 배웠다고 말하는 박준표다.

박준표는 “이번에 경기를 하면서 세 번 승부를 한 타자도 있고 야구 공부를 했다. 밸런스가 느껴 보고 상대와 승부하는 것도 배웠다”며 “결과가 아쉽다. 힘이 떨어져서 원하는 코스로 승부를 못했다. 다음에는 힘을 때 NC 타자들을 다시 만나서 꼭 좋은 승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준표는 현재 KIA 볼펜 유일의 사이드업이다. ‘특급 잠수함’ 임창용과 손영민은 징계에 묶여 복귀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노련한 김병현과 ‘신예 잠수함’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동민은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다. 김지훈·서덕원도 미완의 대기. 위기의 볼펜, 유일한 ‘잠수함’ 박준표의 분전이다. /김여울기자 wool@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폐막

광주·전남 꿈나무 발굴 성과

광주체육중 실력 향상... 19개 종목 15개 금메달
전남, 체조 3관왕·양궁 2관왕... 중1 평영 대회新

체조 3관왕 김선우(10·영광중앙초 4년), 양궁 2관왕 황국희(여·11·구례 중앙초 5년), 사이클 4관왕 황소진(여·13·광주체육중 2년), 수영 왕희승(여·13·동광양중 1년) 등.

제 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광주·전남지역 체육 꿈나무들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난 31일 나흘간의 열전을 끝냈다.

전남은 교육청 중심으로 스포츠 강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초등 체육 교육 활성화에 힘쓴 점이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광주는 체육중 선수들의 선전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도 지난해 하나도 수립되지 못했던 부별신기록이 18개가 쏟아졌으며 부별타이기록도 1개, 대회신 36개(종전 38개) 등 55개의 신기록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 기간, 3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0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8개 등 총 6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 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13위로, 지난해 열린 ‘44회 소년체전’ 종합 10위(금메달 21·은메달 30·동메달 28)에 견줘 다소 못마친다.

하지만 봉산중이 여자 소프트볼 6연패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운데다, 사이클 4관왕에 오른 황소진과 창단 3개월 만에 우승한 첨단중 바둑부 등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성과

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체육중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괄목할만하다. 광주체육중은 배드민턴을 비롯해 19개 종목에 출전, 금메달 15·은메달 4·동메달 13개를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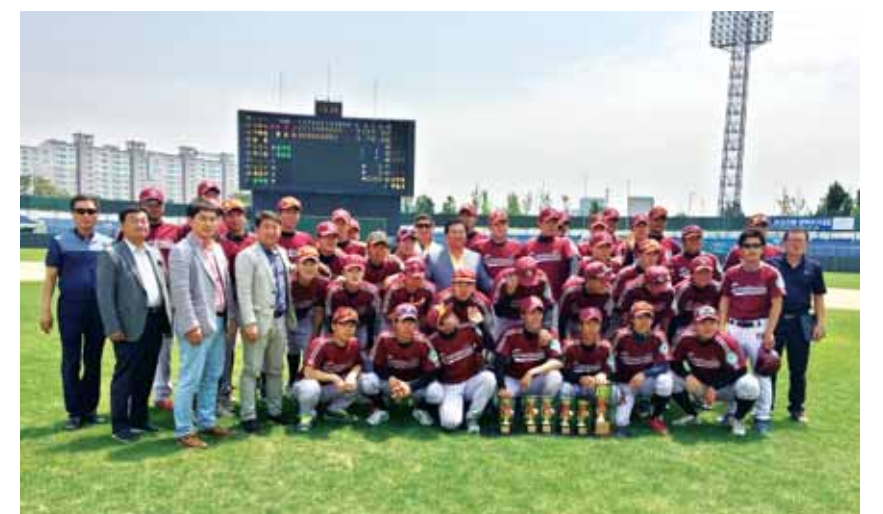
전남 선수단은 35개의 종목에서 모두 99개(금 28·은 33·동 38)의 메달을 따내 전년도(금 20·은 27·동 29 등 76개)보다 좋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 순위도 전년도(12위)보다 상승한 9위를 기록했다.

전남 선수단은 특히 초등학교 체육 교육 활성화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전남교육청의 스포츠 강사의 연수 강화, 전남도체육회의 대표선수에 대한 개인별 전문체력측정과 멘탈트레이닝 사업 등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전남은 초등학교 4학년임에도 마루·뽕틀·평행봉에서 선배들을 제치고 3관왕에 오른 김선우, 중학교 3학년 선배들과의 경쟁 속에서 대회신기록으로 평영 200m 금메달을 딴 중 1년 왕희승, 종목별 최우수선수로 꼽힌 레슬링 양은호(15·전남체육중 3년), 사이클 강서준(14·금성중 2년) 등을 차세대 기대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소년체전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222(금 73·은 65·동 84)개의 메달을 획득, 1위를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dok2000@



송원대 야구, 전국체전 광주대표 출전

동강대 누르고 예선 우승

송원대 야구부가 광주대표로 제 97회 전국체육대회 무대를 밟는다.

송원대가 지난 3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끝난 제3회 JK상조배 대학부 야구대회에서 동강대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체육대회 일반(대학)부 예선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는 3전 2선승제로 진행됐으며, 송원대는 첫날 연장 승부 끝에 11-10 승리를 거둔 뒤 두 번째 경기에서는 5-3으로 이기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이로써 송원대는 오는 10월 충남 공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동성고와 함께 광주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시상내역

▲우승 : 송원대 ▲준우승 : 동강대 ▲최우수선수상 : 이병규(송원대) ▲우수투수상 : 류철호(송원대) ▲타격상 : 이용(0.500·송원대) ▲최다도루상 : 이병규(2개·송원대) ▲최다타점상 : 이용(4타점·송원대) ▲감독상 : 김지환(동강대) ▲미기상 : 김준수(동강대) ▲감독상 : 고천주(송원대) ▲지도상 : 최수태(송원대 총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 코리안 리거 소식

이대호 7호포

강정호 1안타 1타점

김현수 7경기 연속 출루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사진)가 시즌 7호 홈런을 쏘아올렸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안타 행진을 재개했고,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6경기 연속 선발 출전에 불빛으로 7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이대호는 지난 31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경기에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최근 2경기 연속 교체 출전했던 이대호는 3경기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다. 이대호의 시즌 7호 홈런은 6-2로 앞선 8

회말 타졌다. 6-2로 앞선 8회말 1사 1-3루에서 타석에 나선 이대호는 브랜던 마우러의 2구째 시속 156km 강속구를 때려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21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열흘 만에 나온 홈런이다.

이대호는 앞선 세 타석에서 1안타를 쳐 시즌 5번째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기록했다. 8회말 3경기 3점홈런을 날리며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이대호는 타율을 0.267(75타수 20안타)까지 올렸고, OPS는 0.850이 됐다.

이대호가 공수에서 활약을 펼친 시애틀은 9-3으로 승리했다.

강정호는 마이애미주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타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강정호는 1회초 2사 2루에서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 저스틴 니폴리노의 4구째 시속 140km(87마일)의 커터를 밀어쳐 우익수 앞에 푹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쳤다. 올 시즌 18번째 타점, 피츠버그가 끝까지 리드를 지키면서 강정호의 안타는 결승타로 기록됐다. 피츠버그는 10-0으로 대승을 거뒀다.

김현수는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캄덴 야드에서 벌어진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볼넷과 삼진을 1개씩 남겼다.

전날 빅리그 마수걸이 홈런포를 터뜨린 김현수는 보스턴 우완 선발 투수 스티븐 라이트에게 막혀 안타 행진을 2경기에서 멈췄다. 김현수는 18일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 이래 볼넷, 몸에 맞는 볼, 안타 등으로 7경기 연속 출루했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0.360(50타수 18안타)으로 떨어졌다. 볼티모어는 2-7로 패했다. /연합뉴스